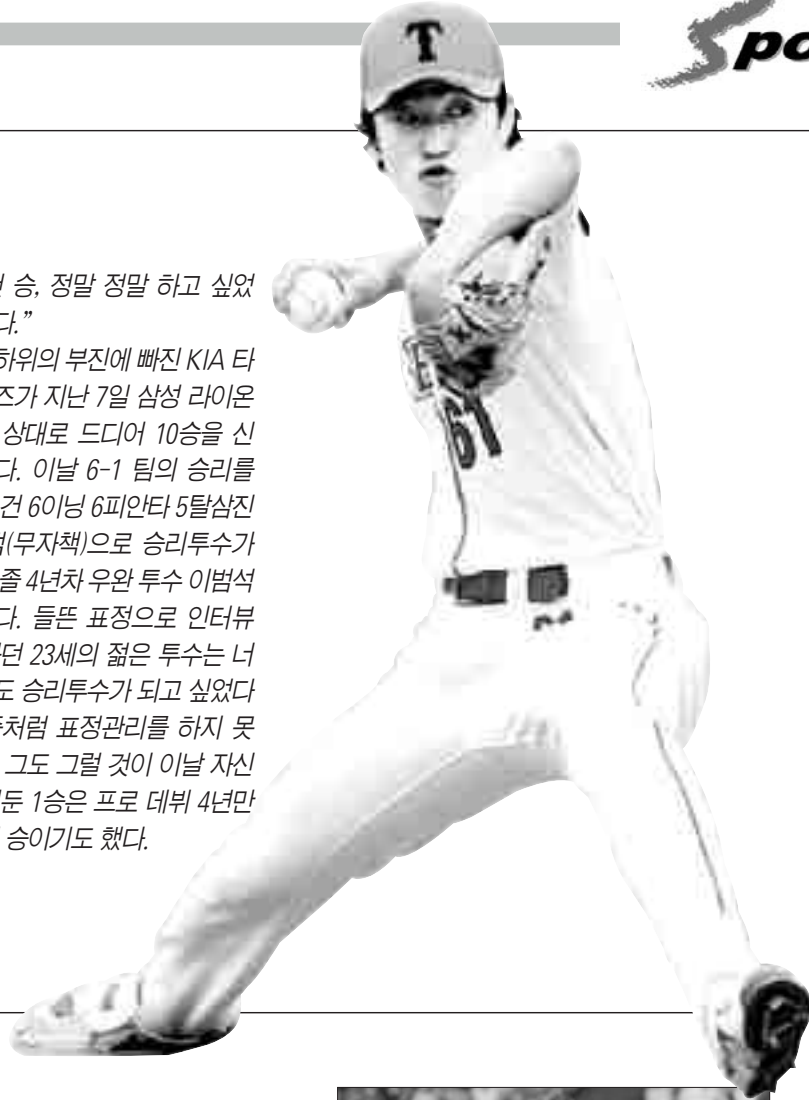


KIA 이범석

프로 데뷔 4년만에 첫승 신고

“첫 승 정말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최하위의 부진에 빠진 KIA 타 이거즈가 지난 7일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드디어 10승을 신고했다. 이날 6-1 팀의 승리를 이끈 건 6이닝 6피안타 5탈삼진 1실점(무자책)으로 승리투수가 된 고졸 4년차 우완 투수 이범석이었다. 들뜬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던 23세의 젊은 투수는 너무나도 승리투수가 되고 싶었다며 좀처럼 표정관리를 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자신이 거둔 1승은 프로 데뷔 4년만의 첫 승이기도 했다.



오랜 침묵 털고 '총알투' 재무장

150km대 강속구 진가 발휘

“팀 승수쌓기 주역 되고파”

경기가 끝난 후 감독실 TV를 통해 이범석의 인터뷰를 지켜본 조범현 감독도 “프로 데뷔 첫 승이라고?”라며 반문할 정도로 이범석은 뒤늦게 꽃을 피운 선수다. 2005년 2차 2번 지명으로 KIA에 입단한 이범석은 그동안 41경기에 등판해 5패만 기록했다. 2005년 7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했던 이범석은 그해 말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2006년에는 아예 마운드에 서지 못했다. 2007년에는 27경기에 나섰지만 주로 패전 처리를 위해 마운드에 올랐다. 입단 동기인 윤석민이 팀 내 에이스로 자리를 굳혀 갈 때 이범석은 ‘유망주’의 틀을 벗지 못했다. 하지만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가진

강속구를 장착한 과감한 피칭으로 이범석은 이날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렸다. 두 번째 선발로 나선 7일 경기에서도 작구 최고 속도는 153km, 슬라이더는 143km를 찍었다. ‘총알투’를 선보인 이범석은 2회 최형우·조동찬·심광호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 세우며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짧은 투수의 거침없는 피칭에 노련한 삼선 타자들도 꼼짝을 못했다. 이범석은 경기가 끝난 후 가장 보고 싶은 이가 누구냐는 질문에 ‘부모님’이라는 대답을 하며 마음을 흐렸었다.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을 선사한 이범석은 이제 KIA의 ‘효자 투수’로의 비상을 꿈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성 선발=리그 우승’ 기대

11일 정규리그 최종전 선발 가능성

‘박지성의 정규리그 최종전 선발 출격은 2연패의 보증수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승리 보증수표’로 떠오른 박지성(27·사진)이 2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까. 박지성은 11일 밤(이하 한국시간) 영국 워건 JJB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워건 애슬레틱과 2007-2008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을 앞두고 있다. 국내 팬들의 관심은 역시 박지성의 선발 출격 여부에 쏠려 있는데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맨유는 2위 첼시와 승점(84)은 같지만 골

득실(맨유 +56, 첼시 +39)에서 앞선 박민의 선두로서 위건을 넘어야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비기거나 지는 등 이번 판을 빼놓으면 우승을 첼시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데다 이번 경기를 마치면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22일까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시즌 내내 써먹던 로테이션 시스템 대신 주전 멤버를 대거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기력에서 라이언 깁스와 루이스 나니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박지성이 베스트 11로 선택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나니는 웨스트햄전에서 보복성 반칙으로 퇴장을 당한 데 이어 3경기 출장정지 징계까지 받았다.



5·18 중·고 태권도 13일 개막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8일간 전국 415개교 2천여명 참가

전국 최대규모의 제10회 광주 5·18민중항쟁 추모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태권도 대회가 오는 13~20일까지 광주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다. 남중부 150개교 926명, 여중부 87개교 292명, 남고부 117개교 786명, 여고부 61

개교 311명등 총 415개교 2천315명이 참가하게 될 이번 대회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갖는다. 13~16일까지 남중부와 여중부 경기가 열리고, 17~20일까지는 남고부와 여고부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 이번 대회는 체급별 토너먼트식 개

인전으로 실력을 겨룬다. 특히 광주태권도협회는 그동안 참가선수들에게 5·18관련 사진전시와 비디오 상영을 통해 5·18민중항쟁을 바로 알렸으며 이번에도 사진전시와 비디오 상영을 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R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완파

일찌감치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우승을 확정지은 레알 마드리드가 전통의 ‘엘 클라시코’ дер비에서 화끈한 골 퍼레이드를 앞세워 FC 바르셀로나를 완파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8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정규리그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13분 라울 곤살레스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아르연 로번, 곤살로 이구아인, 뤼트 판 니스텔로이의 릴레이 골을 앞세워 티에리 앙리의 골로 겨우 체면을 살린 바르셀로나를 4-1로 몰아쳤다.

박찬호 30이닝 퍼펙트

미국 프로야구에서 볼펜 투수로 활약 중인 박찬호(35·LA 다저스)가 3이닝 퍼펙트를 기록했다. 박찬호는 8일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홈경기에서 세 번째 투수로 등판, 3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았다. 살아난 강속구는 최고시속 153km(95마일)에 이르렀고 3이닝 동안 던진 36개의 공 가운데 22개가 스트라이크로 기록됐다. 박찬호의 평균 자책점은 2.45(종전 2.84)로 내려갔으며 다저스는 1-12로 패했다.



9일(금) ▲2008 한국여자프로골프 KB국민은행 스타투어1차대회 1R(12:50·XSPORTS) ▲2008 KB국민은행 Star Tour 1차대회 1R(13:00·KBS N SPORTS) ▲베이징올림픽 레슬링국가대표 최종선발전(14:10·KBS1) ▲프로야구(기아:우리)(18:00·KBS N SPORTS)<한화:LG>(18:20·XSPORTS) <두산:롯데>(18:20·MBC ESPN)<SK:삼성>(21:00·SBS스포츠)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체육중 박다습 2관왕

양궁선수권 50m·단체전 휩쓸어

박다습(여·광주체육중 2·사진)이 제5회 경북도지사기 전국남여 양궁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박다습은 지난 6~8일까지 경북예천 진호 국제양궁경기장에서 열린 50m와 단체전에서 우승,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박다습은 개인전에서 1천355점을 명중시켜 개인종합 3위에 올랐다. 광주체육중은 단체전에서 4천31점을 쏘 2위 대전체육중학교를 8점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육중의 이같은 선전은 오는 5월말 광주에서 열리는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올림픽 성화 에베레스트 올랐다

91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올림픽을 밝혀줄 성화가 8일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중국명: 추무랑마·珠穆朗瑪) 정상에 등극했다.<사진>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앙(CC)TV는 올림픽 성화가 이날 오전 3시(이하 현지시간)께 해발 8천300m의 돌격기지를 출발해 약 6시간20분만에 해발 8천844m의 정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티베트인을 단장으로 한 19명의 전문 산악인으로 구성된 봉송 주자들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해발 8천844m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성화를 올렸으며 올림픽 성화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것을 자축했다. 성화의 에베레스트 정상 봉송은 6시간 이상의 등정 끝에 성화를 올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국내정상급 여성골퍼들이 "항공라이니스리CC"에 모인다.
대회명: 2008년 KB국민은행 Star Tour 1차대회
기간: 2008년 5월 9일(금) ~ 5월 11일(일) 3일간
주최: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발행처: 오후1시 ~ 4시까지 X-SPORTS 채널
참가인원: 국내정상급 프로 & 120명
총상금: 2억원 (3월 54일 스폰서로크출레이)
대회기간: 오후 1시 ~ 4시까지 X-SPORTS 채널